

농어촌공,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돕는다!

- 강진군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작년에 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베트남 지자체에서 올해도 교육을 희망하여 사업을 연장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제고, 나아가 교육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공사의 해외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책임자	부 장	김현석 (061-338-6041)
	총무부	담당자	대 리	우종명 (061-338-6047)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업인과의 의사소통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한국 능력개발원과 협력해 강진 도암농협 사회의실에서 한국어, 한국 생활·문화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 동안 대면으로 실시되고, 6월까지 매주 토요일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나주배원예농협과 힘을 모아 나주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소속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